

샬롬!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모두에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3개월간 남아공 선교 사역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남아공에서 김신권/김다정 선교사 드림.

남아공의 코로나 상황



남아공은 11월 9일 현재 확진자 737,278명, 사망자 19,809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새로운 확진자는 매일 약 1,300-1800명, 사망자는 매일 20-5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 활동이나 사회 활동이 거의 정상화가 된 듯한 분위기 속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난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들이 발생 하는 것을 보면서, 선교지에서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쉽지 않은 선교 상황이지만,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과 사역자들은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기도하며

▲발방크교회 주일 방역수칙 준수

각 선교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선교지 교회 중에 코로나 감염 사례가 보고된 것이 없는데, 계속해서 선교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발방크교회 사역

발방크교회는 지난 번 소식 때 담당 사역자가 사임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후 새로운 사역자를 청빙하기 위해 성도들과 기도로 준비하는 동안, 교회의 요청으로 제가 당분간 담임목사로 발방크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른 선교지들은 주중에 사역자들을 방문하여 협력하고 있고, 주일은 발방크교회를 섬기는 상황입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기로 결정되고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사역자가 공백인 기간 및 코로나 여파 등으로 인해 적은 수의 성도들이 주일예배를 출석했습니다. 그 모습을 강대상에서 지켜보는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백성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후 코로나 봉쇄기간 도둑의 침입으로 부서진 양철 예배당과 사택과 바람에 쓰러진 양철 화장실을 수리하고, 그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섬긴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성도들의 출석이 많이 회복되었고, 새로운 성도들도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제가 이 교회 사역에 집중하고, 내년부터는 신실한 현지인 사역자를 청빙되서 사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척 초기인 2011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사역자가 이 교회를 섬기다 떠났는데, 그럴 때마다 성도들도 마음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교회가 안정적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방크교회 사역자 사임 후 첫 주일



▲발방크교회 최근 주일예배 모습

소볼로교회의 건축 및 부흥

주파송 남천교회 은퇴장로님 부부의 전적인 헌신(6천만원 헌금)으로 소볼로교회 새예배당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시작된 예배당 건축은 하나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예배당, 교육관, 목양실을 포함하여 250m<sup>2</sup> 공간으로 짓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 있는 건물 중에 가장 크고 아름다운 건물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당이 완성되면 좋겠습니다. 건축을 위해 교회 성도들이 조를 짜서 매일 선교지 현장을 함께 섬기고,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전도의 열정을 불태우는 사이 70-80명 출석이었던 성도수가 지금은 120-130 출석으로 부흥했습니다. 소볼로 마을뿐만 아니라 타 지역 마을에서도 교회를 찾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볼로교회가 복음 전파에 더욱 열심을 갖고 지역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답게 건축되고 있는 소볼로교회 예배당

**동키스톱마을 샘물 설치**



▲동키스톱 샘물 이용하는 주민들

동키스톱마을은 림포포주 소볼로교회에서 3KM 정도 떨어진 산 언덕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소볼로교회 예배당 건축을 하면서 주변의 물부족 상황을 조사하던중 동키스톱 마을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남아공 선교지를 방문한 거제호산나교회(서대경 담임목사) 선교팀이 교회 은퇴권사님의 샘물 목적 헌금(1천만원)을 전달해 주셔서 이 마을에 샘물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11월 현재 샘물은 56 가정이 이용하고 있고 주민들 모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샘물 부지는 마을 주장이 무상으로 기증해 주었는데, 향후 이 부지는 선교 목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교회 이름으로 부지 등록을 해두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 마을에도 교회가 개척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샘물 사역은 기존 선교지를 중심으로 진행을 했지만, 동키스톱 샘물부터는 선교지 개척을 위한 진입 사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샘물 설치 -> 교회 개척 -> 마을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월 중순부터 진행되는 두룸 마을 샘물(남천교회 은퇴 여전도사님 헌금) 및 마라카넵 마을 샘물(남천교회 은퇴 장로님 헌금)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구제 사역**

지난 세 번의 KPM 사랑의 나눔 지원 사역 및 교회와 개인의 후원을 통한 수 차례의 지원 사역을 통해 총 11톤의 밀리밀(옥수수 가루)을 선교지의 어려운 가정에게 전달했습니다. 남아공 림포포주 및 음푸말랑가주 선교지 8곳 선교지 교회 성도들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사역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달된 식량을 받은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되었고 새가족 등록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회의 지원은 처음 받아 본다면 감격해 하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후원자들을 보내주셔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제목**

- ①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종식되어 우리 모두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 ②선교사 가정 주변에서 크고 작은 강도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 ③18개 선교지 교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사역자들이 신실하게 훈련받고 쓰임받게 하소서
- ④샘물, 유치원, 농장 프로젝트들을 통해 선교가 힘을 얻고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 ⑤소볼로 예배당 건축이 아름답게 잘 완공되게 하시고 전도의 열정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 ⑥두룸 및 마라카넵 마을 샘물 프로젝트를 통해 물뿐만 아니라 복음이 함께 전파되게 하소서
- ⑦발방크교회를 섬길 신실한 사역자가 청빙되게 하시고 아픔과 상처를 경험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소서